

국어(한문 포함)

문 1.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모두 바른 것은?

- ① 꽃잎이 한잎√두잎 강물에 떠내려가√버렸다.
 ② 이곳에서 주문할 물품의 개수는 스물나제√서른 정도입니다.
 ③ 부장√겸√대외협력실장을 맡고 계신 김부장님을 모셨습니다.
 ④ 김√동식√박사께서는 열심히 노력하신√만큼 큰 상을 받게 되셨다.

문 2. 밑줄 친 관용 표현 중 사용이 적절치 않은 것은?

- ① 낙숫물이 땃돌을 뚫는다는데, 계속 노력하면 꼭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② 아이고, 너같이 느려서야 뭘 하겠니? 갓 쓰고 나가자 파장 하겠다.
 ③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으라는데, 무슨 일이든 마음 놓지 말고 확실하게 하렴.
 ④ 설 원 무 같이 아무지도 뚝뚝하기가 아주 비할 데가 없어.

문 3.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다른 것은?

- ① 겨울철에는 군고구마가 간식으로 제격이다.
 ② 너는 웬 군소리가 그렇게도 많니?
 ③ 맛있는 음식 때문에 군침이 돈다.
 ④ 군불에 밥 짓기.

문 4. 다음 예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너는 학생이므로 그 위험한 일에서 한발 비켜서야 한다.

- ① ‘너’와 ‘그’는 문장 성분은 다르지만 품사는 같다.
 ② 이 문장은 11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③ ‘한발’은 ‘한’√‘발’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④ ‘위험한’과 같은 품사의 예로, ‘헌 물건’의 ‘헌’을 들 수 있다.

문 5. 다음 예문에서 밑줄 친 문장 성분을 잘못 파악한 것은?

- 그녀는 ㉠아름다운 꽃을 품에 ㉡가득 안고 왔다.
 ○ 하루 종일 ㉢비가 왔다. ㉣다행히도 마음만은 즐거웠다.

- ① ㉠: 관형어
 ② ㉡: 부사어
 ③ ㉢: 주어
 ④ ㉣: 독립어

문 6. 예문의 밑줄 친 부분과 그 수사(修辭)적 유형이 같은 것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옥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 김동명, ‘내 마음은’ 중에서 —

- ①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屈辱)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② 님의 사랑은 뜨거워
근심 산(山)을 태우고 한(恨) 바다를 말리는데
 ③ 가려다 오고 오려다 가는 것은 나에게 목숨을 빼앗고 죽음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④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虛空中)에 헤어진 이름이여!

문 7. 다음 글을 문맥에 맞게 배열한 것은?

(가) 그뿐 아니라, 자신을 알아주는 이, 즉 지기자(知己者)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버릴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은혜는 은혜대로, 원수는 원수대로 자신이 받은 만큼 되갚기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나) 무공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협객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협이란 사생취의(捨生取義)의 정신에 입각하여 살신성명(殺身成名)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 또는 그러한 실천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다) 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개와 의리를 숭상하여야 하며, 개인의 존엄을 중시하고 간악함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신의(信義)를 목숨보다도 중히 여길 것도 강조되는데, 여기서의 신의란 상대방을 향한 것인 동시에 스스로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다.
 (라) 무와 더불어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협’의 개념이다. 무협 소설에서 문제가 되는 협이란 무덕(武德), 즉 무인으로서의 덕망이나 인격과 관계가 되는 것으로, 이는 곧 무공 사용의 전제가 되는 기준 내지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라) - (가) - (다) - (나)
 ② (라) - (다) - (가) - (나)
 ③ (나) - (다) - (라) - (가)
 ④ (나) - (다) - (가) - (라)

문 8. 다음 시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 정호승, ‘봄 길’ —

- ①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② 부정적인 상황에 한탄하지 않고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③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 버리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④ 사소한 사물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나 활달한 태도가 드러난다.

문 9. 번역 투의 표현이 아닌 문장으로만 짝지은 것은?

- ① ○ 나는 부모님에 의해 예의 바르고 친절할 아이로 자랐다.
○ 그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자고 나가는 곳 외에 아무 의미가 없다.
- ② ○ 이번 방학에 제주도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학내 폭력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게는 자숙하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 ③ ○ 내 고향에는 아직도 많은 친척들이 살고 있다.
○ 이런 것은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 ④ ○ 이런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오늘 조회 시간에는 학교 문제에 대한 교장 선생님의 솔직한 해명이 있었다.

문 10.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만 나열된 것은?

- ① 웃니, 찻집, 두렛일
- ② 굵직하다, 넓직하다, 높다랗다
- ③ 그렇잖다, 만만찮다, 적잖다
- ④ 양심(良心), 유행(流行), 성공율(成功率)

문 11. 다음 작품에서 화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영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응혜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리 벼슬길에 해매고 있으리오.

— 정약용, ‘보리타작(打麥行)’ —

- ① 농촌에서 노동하는 삶
- ② 벼슬을 하는 지식인의 삶
- ③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룬 삶
- ④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적인 삶

문 12. 다음 예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우리말다운 표현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글 속의 문장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우선이 되는 것은 문장 내에서 서로 호응하는 성분 간의
관계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 ① 철수는 지금 당장 유학을 가려고 했지만,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었다.
- ② 문화 결손은 교육학에서, 어린이가 자라면서 어떤 문화적인 환경에 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잘못이다.
- ③ 2년 전 당산의 나무를 건드린 이 마을 사람 하나는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고, 올해에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 ④ 보안과 관계된 사항에는 각종 비문뿐만 아니라 부대 위치 및 지휘관의 신상, 활동 등도 포함된다.

문 13. 다음 예문에서 이완의 처지를 반영한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변 씨는 이완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보고 이완이 몸소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 했다. 허생은 못들은 체하고, “당신 차고 온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 했다.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켜는 것이었다. 변 씨는 이완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하였으나, 허생은 대꾸도 않다가 야심해서 비로소 손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완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완이 몸 둘 곳을 몰라 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 ① 門前薄待, 坐不安席
- ② 狐假虎威, 威風堂堂
- ③ 優柔不斷, 騎虎之勢
- ④ 虎視眈眈, 威風堂堂

